

다른 길도 있다



정 주 영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9기
- 제9회(2020년)변호사시험 합격
- 2020년 검사 임용

I. 개 관

변호사시험(이하 변시)이 100일 정도 남았을 때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때 학교에서 제작해서 나눠준 선배님들의 변시 합격 수기는 물론 고시계에 게재된 합격수기도 전부 찾아 수회 읽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었고 수험생활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 글도 변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수험생활의 특이점은 검찰준비를 한 점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형사과목에 치중된 공부를 하였고 검찰임용과정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변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음수표법과 헌법은 거의 준비하지 못한 채로 들어갔고 민사기록과 민사소송법을 검찰 합격발표 후 급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II.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1. 매학기 학교 수업에 충실할 것

1, 2학년때 학점관리를 위해 각 과목을 열심히 공부한 것이 결국 변시대비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때 본 책

이나 정리한 자료를 시험장까지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1, 2학년 분이시라면 학교수업을 최대한 충실하게 따라가시고 책 정리도 미리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학기 수업한 범위는 꼭 그 학기 때 끝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해당 학기의 필수과목은 반드시 들을 것을 추천하는데 모두가 할 때 안해놓으면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그 과목을 보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공부의 집중도 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추후 서술하겠지만 저도 학교 커리큘럼 상 들어야했을 민사재판절차(민사소송법2), 민사재판실무 수업을 듣지않았다가 변시 당일까지 매우 고생하였고 공부계획도 많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2. 공부 외 다른 곳에 시간 뺏기지 않기

로스쿨 학생회장을 하게 되면서 성적이 놀라운 폭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다른 곳에 시간과 정성을 쏟을 일이 생기면 공부습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공부를 최우선순위에 두시고 그 외에 방해될 수 있는 일체의 어떤 일도 안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수험생활을 위해서는 모든 생활을 공부에만 오롯이 집중하시고 행동반경도 학교(독서실), 집 외에 다른 장소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여유를 가지며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분들도 계시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시험에 붙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의 경우 쉴 때 쉬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전환이 잘 되지 않는 타입이어서 아예 쉬는 날 없이 공부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수업이 없는 주말에 공부시간을 9~10시간 정

도 확보하였습니다. 7일 전부를 하루 9시간의 순공부 시간을 목표로 공부하였고 매일 공부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가끔 이런저런 이유로 공부를 못하는 날도 생기긴 했지만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씩은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3학년 때는 문자와 전화만 되는 핸드폰(갤럭시J2 PRO)을 사용하였는데 공부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방법이 자기와 잘 맞을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핸드폰부터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부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Ⅲ. 시간이 정말 부족한 경우의 예외적 상황

3학년 2학기까지도 민사소송법과 민사기록이 거의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와 압박이 엄청났습니다. 변시 직전의 기간을 많은 친구들이 객관식에 몰두하는데 저는 객관식에 시간을 거의 쓰지 못하고 객관식의 경우 형사는 검찰준비 한 것으로, 민사는 3학년 1학기때 수업들으며 준비한 것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객관식은 엑스칼리버와 같이 최대한 빨리 읽을 수 있는 자료와 과거에 보았던 눈에 익은 자료들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도 매년 새로운 판의 책을 사긴 했지만 막판에 새책이 잘 읽히지 않아 급하게 많이 보았던 옛날 책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저의 경우 막판 두세달을 민사소송법에 투자하느라 민사기록 문제를 시간을 두고 읽으면서 답안을 완성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절대적 시간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결국 변모(2011년부터 출제된 문제 전부), 변시기출 문제의 답안만 수회 읽는 것으로 대신하였

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는 경우라면 답안 위주의 공부가 그나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방법이므로 당연히 미리미리 해두셔야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시간을 정해두고 사례 답안지 쓰는 연습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례 공부를 할 때도 저는 문제를 읽고 바로 답안을 보는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손으로 직접 답안을 작성하지 않고 항상 노트북 타이핑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로써 공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손목이 아픈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시험에서는 어차피 시간이 부족할 것을 전제로 가장 빠른 속도로 답안을 작성하게 될 것이므로 굳이 직접 수기로 답안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시간 정해서 답안을 직접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만약 이를 못하셨거나 시간부족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키보드 타이핑으로 시간을 줄이시거나 답안을 보고 수회 반복하여 암기하거나, 키워드 중심으로 짧은 시간에 현출 연습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면 좋을 것입니다.

IV. 잘하는 과목 만들기보다는 부족한 과목 없도록

시험결과는 노력이나 실력에 꼭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과목은 아예 포기하고 내가 잘하는 과목에 투자를 많이하자.”는 방법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형사사례나 형사기록은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1,2등을 하였고 검찰실무 과목의 성적도 줄곧 좋았기 때문에 변시 형사법에서 자신없던 민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

라 기대했지만 성적표를 보니 오히려 형법은 기대에 못미쳤고 민법 성적이 더 나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하는 과목만 믿기에는 변수가 큼니다. 모든 과목을 골고루 평균이상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안해놓은 과목은 없어야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 미루고 미루다보니 헌법을 거의 못보고 들어갔는데 헌법은 사법시험을 공부한 경험으로 그나마 보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음수표법의 경우 얇은 요약서로 급하게 보긴했음에도 결국 전부 다 틀렸습니다. 안하느니만 못했습니다. 최소한의 책정리와 기본적인 이해는 아무리 늦어도 시험 3달 전까지는 되어있어야 한다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V. 공 법

공법준비는 부끄럽게도 최소한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법 형법위주로 하다보니 시간이 없어 사례는 핸드북으로 계속 공부를 하였고 잘모르는 부분만 기본서를 발췌하여 보았습니다. 객관식 대비는 박도원, 선동주 선생님의 핵지총과 최신판례집으로 하였습니다. 공법기록은 강성민 변호사님의 공법기록 엑기스를 보았는데 시간이 없다보니 이론부분이나 모의고사 문제는 못보고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만 겨우 풀어 보았고 교수님이 나눠 주신 자료들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VI. 민 법

민법은 전 학년 내내 꾸준히 볼 것은 물론 민사재판실무가 있는 3학년 1학기를 민법학기라고 생각하고 이때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을 추

천합니다. 검찰준비를 하시는 분들께도 민법 70%, 형법 30% 비중으로 공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3학년 1학기 시작시 대략 자기 실력을 알 것입니다. 민법을 어느정도 잘하고 로스쿨에 와서 성적이 좋다면 민법 비율을 줄여도 되겠지만 애매한 상태라면 민법을 저 비율보다 낮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3학년 1학기까지 해놓은 민법 실력으로 변호사시험장에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검찰실무·심화 성적이 좋았다면 더더욱 민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민사재판실무 수업을 안들은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였습니다. 이 수업을 통한 모든 학습과정을 경험하지 않을 시 민사기록과 민법판례실력이 남들보다 뒤쳐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민재실 안들은 것을 학교에서 하는 민법사례 수업으로 보충하려고 이 수업 때 객관식 문제집과 사례집 4~5회독 정도 하였습니다. 이 때 열심히 안했다면 변시 민법을 매우 못봤을 것입니다. 3학년 1학기는 민법에 집중해야할 학기입니다. 검찰 합격을 위해 이 시간을 형법공부에 쏟는다해도 (법학 지식의 휘발성과 7, 8월 내내 검찰준비 집중한다고 가정할 시)당락에 큰 영향이 없을 뿐더러 변시 민법이 크게 위협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예외적인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형사재판실무와 민사재판실무 수업은 반드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때문에 고생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1의 성적도 좋지 않아서 민사소송법 뒷부분 수업을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3학년 2학기때 민사소송법 PBL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내용을 30%도 이해하지 못하였고 매시간 사례답안을 써서 내야했는데 한글자도 못쓴 채로 멍하니 앉아있었습니다. 결국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했고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초가 없어 박승수 선생님의 민사소송법zip 책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책정리를 하였습니다. 변시가 얼마안남은 시점이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며 책정리를 하고 객관식 문제집 1독을 하였고, 사례는 문제를 보고 바로 답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서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실제시험에서는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한 상법사례(3문)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 많이 쓰지 못하였고, 오히려 민사소송법에서 아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자신있게 썼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법을 포기했다라면 합격이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학년 1학기 때에는 민법외에는 검찰 준비를 위해서 변시·변모 형사기록을 하루 1회씩 풀었습니다. 하지만 민법에 대한 부담 때문에 1시간 내로 기록을 읽고 30분 내로 답안을 쓰는 방법으로 1시간반을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답안은 직접 쓰지 않고 노트북 타이핑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답안을 빨리 쓰는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VII. 형법 및 검찰준비

1. 개 관

검찰 준비과정을 따라가다보면 변시대비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합격한 선배들이 변시를 붙는 이유는 원래 잘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지 검찰준비 후 남은시간이 변시 대비에 충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검찰을 생각하고 있다면 1, 2학년때 형법 외 다른 과목들을 더욱 열심히 해놓아야합니다.

2. 본시험 준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에는 공부에 손을 잘 안잡혔습니다. 2주정도 잡고 상법 사례를 보고, 행정법 인강 등을 들으려 했으나 형법공부를 해야한다는 생각에 갈팡질팡 하였고 결국 거의 손대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기말고사 직후에는 형법보다는 본인이 부족한 과목을 2주정도 시간을 두고 보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7~8월에 검찰 본시험을 위해 형법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이미 본 책과 익숙해진 관례들이 다 아는 것처럼 느껴졌고 수회 풀어본 기록 또한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때의 해결책으로 형법요론 ox문제집을 풀고 하루에 기록 1개(나중엔 2개), 변시·사시 사례문제 등 새로운 문제를 접하는 방법으로 지루함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시험 직전 3일간 형법요론을 2회독하였습니다.

검찰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 때를 마지막으로 변시 형법, 형소 (객, 사, 기 모두)공부는 끝이라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형법을 다시 볼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다 까먹을 것 같아도 이때 정말 많이 해놓으면 변시 상위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간 형법공부에 매진하다보면 공부가 잘 안되거나 지루할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객관식 문제집을 풀면 좋습니다. 관례 결론을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대비에 있어 (형법+형소) 객관식문제집을 푸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해 따로 형법 객관식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기타

자기소개서, 면접준비에 들이는 시간은 최소화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크게 변별력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어느 정도는 잘 보기 때문이고 단기간 연습한다고 크게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4. 검찰 대비용으로 보았던 책

- 변시·사시·법원행시 형법 사례집
- 변시·변모·사시 형사 객관식 문제집
- 변시·변모 형사 기록형
- 검찰실무 1, 2 기록들(이전 기수 것까지 전부)
- 형사재판실무 기록(이전 기수 것까지 전부)
- 사법연수원 검찰실무, 형사재판실무 기록, 사례 문제모음
- 로스쿨 형사재판실무 수업 자료, 과제
- 형법요론, 형법요론ox문제집
- 사법연수원 출판 형사판례요약집
- 최신판례(사법연수원 자료+강사 저 최신판례집)

VIII. 최신판례, 선택법

최신판례는 가능한 10월이 지나기 전에 빨리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뒤로 미루면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선택법에도 시간투자를 꽤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국제거래법 또는 환경법을 선택하였었는데 저는 민법, 공법과 호환이 된다는 점에서 환경법을 선택하였고 만족하였습니다. 11월쯤이 되어서야 시작하다보니 불안해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매일 다른 과목 공부가 끝난 뒤 30분~1시간씩 보는 방법으로 했는데 덜 지루하여 좋았습니다.

IX. 멘탈관리와 기타 조언들

저는 1,2학년때까지만 해도 힘든 것 하나 없이, 흔들림 없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3학년 때는 “검사가 못되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다보니 정신적으로 급격하게 힘들어졌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힘겹게 느껴졌고 공부시간 또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언가가 꼭 되어야한다는 생각은 공부를 함에 있어 큰 원동력이 되지만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안된다.”는 마음가짐 보다는 “다른 길도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 편히 공부하시는 쪽이 훨씬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선배들 합격수기를 최대한 다양하게 많이 읽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배들의 수기를 통해 희망과 힘을 얻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부방법과 계획이 있으므로 나와 맞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취거하시기 바랍니다.

공부가 잘 안될 때는 인터넷 강의나 학교 특강 들으면 좋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강의를 들으며 억지로라도 책정리를 하는 것이 그나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하루도 놀면 안됩니다. 범위가 방대한 시험입니다. 오늘부터 하루도 놀면 안됩니다.

변시 앞둔 직전에는 역시 객관식이 효율성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들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3학년 때에는 마음과 시간을 쓸 일을 만

들어서는 안됩니다. 인간관계, 걱정·고민거리를 미리 꼭 해결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평소라면 넘어갔을 일도 변시를 앞두고는 모두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때 혼자 괴로워하는 것 보다 같은 시간을 경험한 선배들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기들에게 힘든 것을 말해보았자 다들 힘든 상황이라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동기들끼리는 희망적이고 힘을 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막판에 불안하고 힘들어질 때마다 8기 선배님들께 연락을 드렸고 다들 너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6월 모의고사 전에 변호사시험이 어떤 것인지, 점수산출방식, 문제유형, 배점, 시간, 성적표 보는 방법 등을 파악하고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X.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지면을 빌어 학생들을 위해 전폭적 지지를 해주셨던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님, 모든 직원분들,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빛나는 보석 같았던 우리 동기들 항상 응원합니다.

시험년도	2020			수험번호	■■■■			이름	정주영	생년월일	■■■■			
선택형			논술형									전문적법률분야		
공법	형사법	민사법	공법			형사법			민사법			환경법		
			1문	2문	기록형	1문	2문	기록형	1문	2문	3문	기록형	1문	2문
67.50	82.50	122.50	63.17	53.96	52.61	57.53	64.38	54.35	83.43	62.25	52.85	102.97	43.74	53.68
			169.74			176.26			301.50			97.42		
총점			1017.42											